

응답 그리고 증인 (사도행전 3:1-10)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 인간은 원래 답이 없는 존재였다.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증거이다. 인간은 생각없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쪽을 가르친다. 인간도 할수 있다고 가르친다. 어느정도 할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조건없이 어느정도 이미 주신 것이다. 그것가지고도 조금 할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할수 있다 없다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니가 하나님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결론은 니가 부처가 되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답이 없어서 불교에 들어가 답을 찾았다는 유명한 스님을 알고 있다. 마지막에 답을 못 찾았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셨다. 평소에 수시로 말했다고 한다. 나는 답을 찾으면 불교를 떠난다고. 결국 석가는 사단이다 라고 말하고 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것인데, 답을 얻으려고 8년간 등을 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참 각오가 대단하다. 진짜 안됐다. 그 만큼 답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보다는 한 수 위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답 이런 것을 생각 안한다. 그냥 살거나 돈이나 생각하며 살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가? 안한다. 길을 잘못 들어서서 결국 모든 것을 실패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답을 가졌고 매일 답이라고 듣는다. 그런데 자신을 사실 양심적으로 돌아보면 그 답을 가지고 살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먼저 잡고 있다. 어떤 경우는 머리는 아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는 것이다. 답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안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 답이 진짜로 발견되어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정말로 답으로 발견되어지면 답으로 살지 않겠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쩔수 없이 옆길로 가도 마음으로는 딱 잡고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 기도의 근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자꾸 하고 있으면 체질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을 것이다. 답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답을 찾고 있다. 인생의 답, 문제의 답, 미래의 답. 원죄 이후로 인간이 이 답을 잃어버린 것이다. 원죄 이전에는 답이 있었다. 그 답의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이다. 오직 이길 뿐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아무 말 할지 말고 그 길 따라가면 될 것이다. 누리고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거들이 우리 인생에 자꾸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축복이 임하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란다.

1. 응답, 그리고 증인

이 분은 응답을 받고 증인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다. 성전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날때부터 걷지를 못했다. 그렇게 되면 평생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그가 어느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어서버린 것이다. 인생 완전 역전된 것이다. 우리가 답이 말씀안에 있는데, 매주 우리가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났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인생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단이라고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제사장도 못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 아무도 못한 일이다. 동전은 던져 줬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운명은 뒤집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단의 대표 베드로가 그 운명을 뒤집은 것이다. 본문 8절에 보면 기도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는 걸어보지도 못했고, 성전에 한번도 들어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집에 가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레위기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 중에서 성물, 지성물 관계 없이 이 사람도 그 음식을 먹을수는 있다고 되어 있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구원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전은 완전 회복을 표시하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것들이 원칙이 되어서 몸에 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여자는 관찮다. 본래 성전에 안 가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남자였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기어서라도 가고 싶는데 안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해제되었다. 그리스도. 이것이 해방이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기도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운명에서 해방된, 평생 못 잇을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을 것이다. 이래서 그는 진짜 시대적인 증인이 되었다. 예루살렘에 그 이후에 소동이 일어난다. 예루 살렘에 드나드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3천제자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도 실질적으로 이 때부터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완전 역전이다.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 날때부터 태어나보니 걷지를 못한다. 그 가족들은 어땠겠는가? 그래도 어쩔수 없는 것이다. 구걸을 하지 못하면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표현할수 없는 저주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세 번 하나님 앞에 나

아가야 한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것을 믿고 있고 사상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서러운 생각이 한꺼번에 날라가버렸을 것이다.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람은 율법에 걸려 있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율법이 박살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움 많다. 이 사람처럼 난 인생이 왜 이런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 자체이다. 너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라. 역전되는 시간표가 온다.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민할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고민하는 인생에 답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준 것이니까 답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우리 인생도 역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전만으로 끝나게 아니라 응답을 통해 증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2. 기도

오늘 일은 제 9시 정시기도 시간에 나타났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이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정시기도를 한다. 그 중에서도 오후 기도시간이었다. 그 기도시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참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이다. 언약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다.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응답하겠다고 약속도 하셨다. 살전 5:16-18절 잘 아는 말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 사도바울의 평소 기도세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평소 뿐 아니라 그는 전도 현장을 갔을 때에도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바울은 전도보다도 기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제일 먼저 유럽전도의 첫 관문이 빌립보였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거기 도착해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 기다렸다는 것이다. 전도하러 갔으면 바로 현장으로 가야하는데 몇일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밥만 먹고 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기가 이 지역을 떠나도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지속할수 있는 제자 한명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도 사도바울은 분명 이 기도를 했을 것이다. 왜냐면 자기가 받은 사명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 그 때 받은 사명이다. 사도행전 9장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평생 거기에 꽂히게 되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 나는 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였다. 그 때 사도바울 완전히 깜짝 놀라서, 그 예

수가 그리스도란 말이나?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간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딱 받았다. 평생의 언약으로 가슴에 꽂혔을 것이다. 너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 전도. 그 때부터 사도바울은 거기에 완전 올인이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나는 그러면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다는 말이나는 표현이 있다. 베드로는 늘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운동을 한 것 같다. 그러면 내만 그럴 권한이 없다는 말이나? 라고 한 것봐서 아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다.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한다. 예루살렘에 갔을때에도 방문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다. 완전 하나님께 다 맡겨 버렸다. 진짜 그 순간 끝내버렸다. 나보다도 내 가족을 더 잘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이 드로와에서 길이 막혀서 빌립보로 갔는데 가서 밥먹고 놀았겠는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복음가진 사람이 다음으로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시대적인 복음운동을 한 사람도 보면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언약을 받은 이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다. 불평했다는 말이 한번도 없다. 모세는 진짜 언약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모세만한 기도의 사람도 찾기 힘들 것이다. 문제가 일어날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행했다.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다. 기도 없이 되겠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수 없다고 하였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보라. 그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다니엘은 어땠는가? 아주 복음이 뭔지 알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다. 위기 만났는데 생명걸고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기 바란다. 복음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기도라는 것은 메시지 많이 들었다. 적어도 이 언약의 끈을 놓지는 않을 만큼 언약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응답 받고 큰 증인이 되기 바란다. 이래서 이 언약의 권세가 우리 주위에 나타나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음에 담아야 할 것, 한 개 있다. 언약을 잡아야 한다.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이 언약이 우리 주위에 역사한다. 이 언약이 흑암세력을 꺾는 것이다. 그러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런 증거를 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흑암세력이 무너졌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다. 인생이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 나라이다. 이게 보좌의 권세 아닌가? 이게 3초월의 역사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